

## KTX 20주년 철도문화전을 열며

여러분은 '철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양한 답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강인한 이미지 때문에 고개를 가웃하실 수 있지만, 사실 철도는 풍부한 문화 콘텐츠이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개체입니다.

여기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도 좋은 예입니다. 1925년 경성역으로 문을 연 이곳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경양식집과 티룸 등을 갖춘 신문물 집결지로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경성발 열차는 사고의 지평을 넓혔고 벽시계 '파발마'는 시간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80년도 되지 않은 2004년, 서울-부산을 2시간대에 주파하는 KTX의 등장엔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거리의 제약이 사라지고 생활 반경이 확대되자 지역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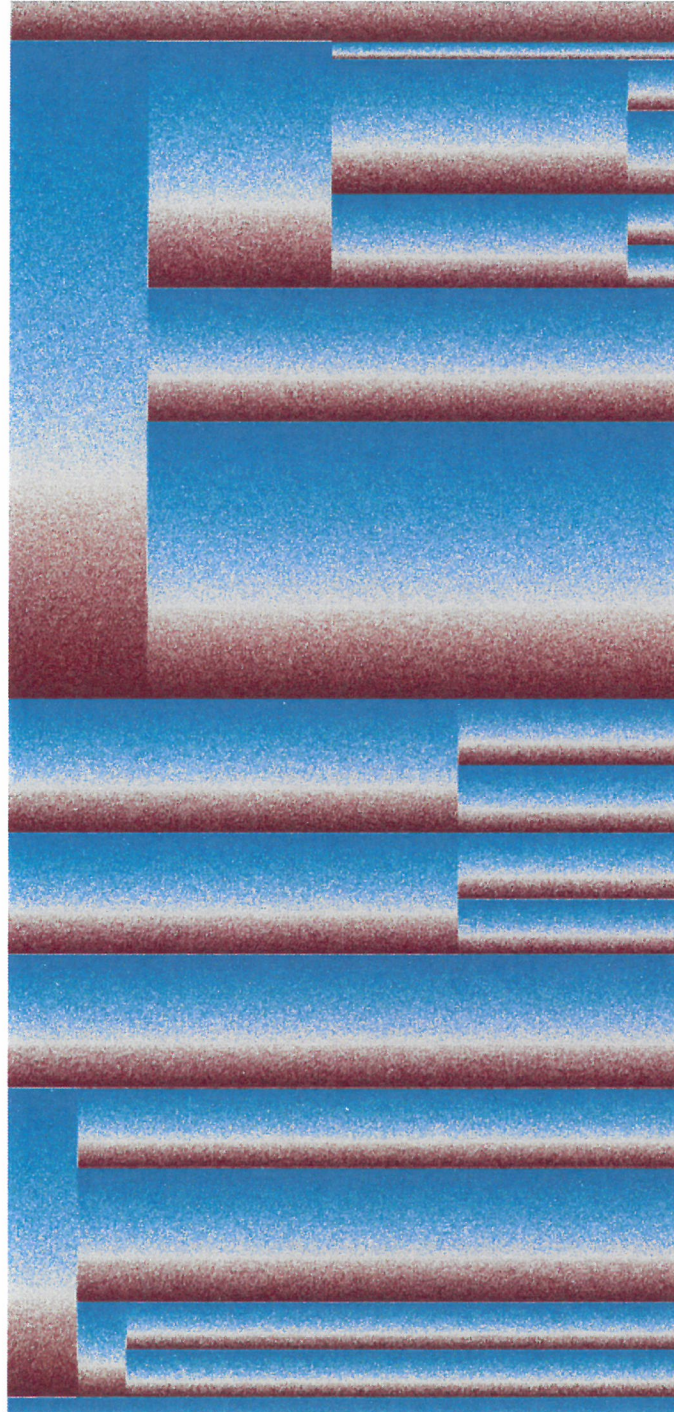
우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KTX로 대표되는 한국철도가 대한민국의 일상과 문화를 변화시킨 순간과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열차연계교통·관광·문화 융합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한국철도의 미래도 그려 보려고 합니다.

문화는 향유하는 이가 없으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긴 시간 동안 코레일과 KTX를 사랑하고, 또 이번 전시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우리 철도 문화 콘텐츠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한국철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 3. 29.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 문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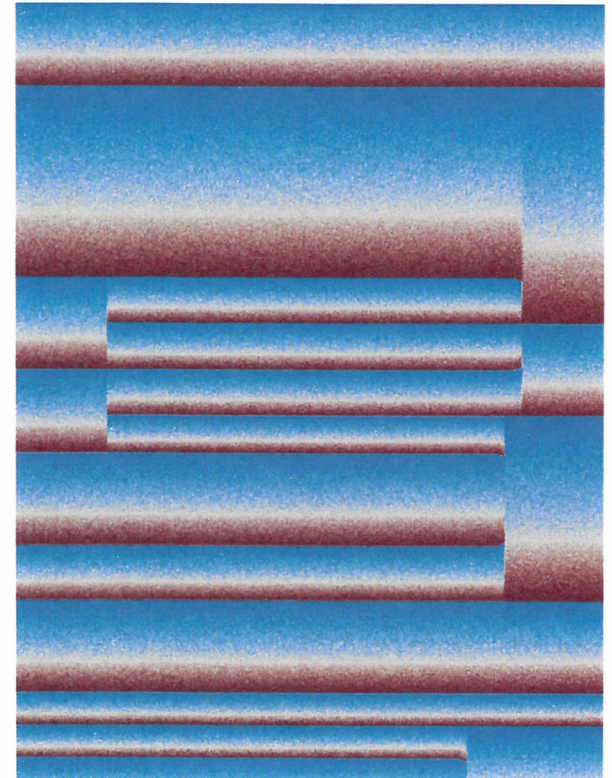
KTX 20TH ANNIVERSARY EXHIBITION  
2024.3.29. — 4.21.  
CULTURE STATION SEOUL 284

주최 · 주관  
**KORAIL**  
한국철도

협력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KTX 20주년 기념 철도문화전  
2004 - 2024

**JOURNEY  
BEYOND  
PLUS** 여정 그 너머



문화역 서울 284  
**2024.3.29. — 4.21.**

# 여정 그 너머 JOURNEY BEYOND PLUS

이 전시는 단순히 KTX 개통 이후의 20년을 늘어놓은 타임라인이 아니다.

2004년, 최고 시속 300km 열차의 등장이 바뀌놓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 사회 변화상은 물론 한국철도 130년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기술력까지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응축해둔 KTX 발전의 20년사 그 자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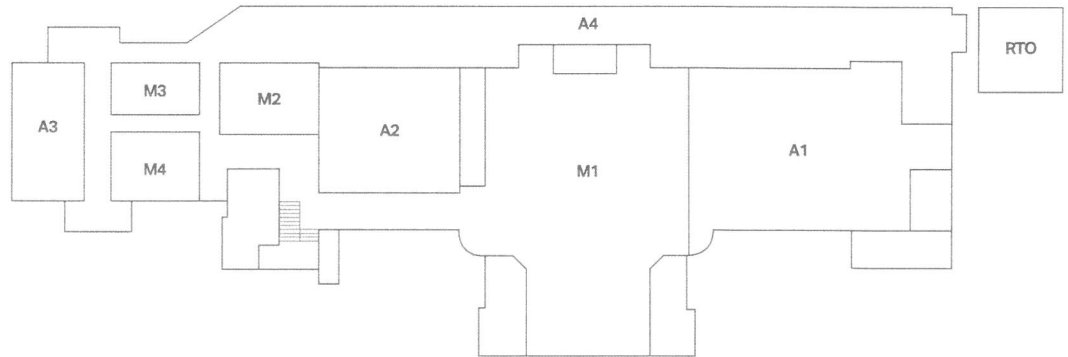
'JOURNEY BEYOND PLUS: 여정 그 너머'라는 전시 키워드는 모든 작품을 통해 공명한다. 플러스를 나타내는 기호 '+'는 힘과 향상, 잠재력의 서사로 KTX가 촉발한 장소 간의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해진 가치와 미래에 대한 열망을 상징한다. 이때 KTX는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수단이자 사회와 시간을 이어주는 통합의 수단으로서 탐구된다.

이 전시에는 철도박물관 소장품과 기술 분야 전시품뿐만 아니라 미디어, 조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0여명의 중진/신진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다방면에서 KTX로 변화한 사회문화적 발전상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 탐승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미시적으로 훑어본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공감하는 보편적인 경험과 가치를 독특하고 예술적인 시각으로 풀어낸다.

우리는 KTX의 의미와 앞으로의 지향점을 이야기한다. 운송수단이라는 기본 개념을 넘어 디지털 혁신과 연결,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KTX가 추구해야 할 비전을 설정한다. 아카이브 전시와 함께 작가들은 과거-현재-미래 3단계의 흐름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KTX와 함께 한 20년을 구성한다. KTX와 함께 할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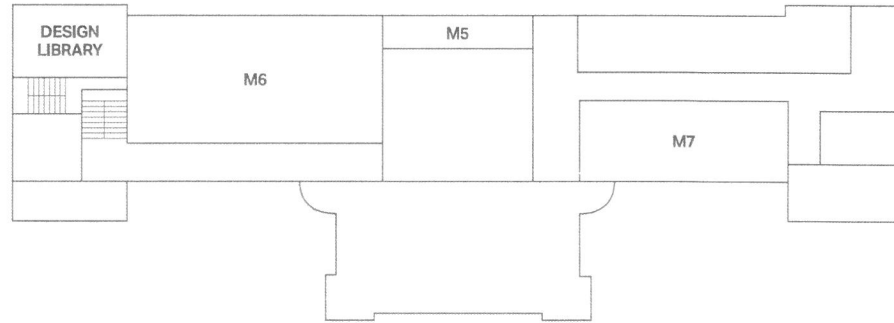
예술감독      큐레이터  
강 신 재      김 미 연

1F



- M1 메인홀 <퓨처 디오라마 Future Diorama> 강신재
- M2 부인대합실 <철도사회 Railway Society> 선정원
- M3 역장사무실 <풍경을 위한 시네틱 무브먼트 The holistic synaptic movement for Scenery> 황선정
- M4 귀빈예비실 <Quantum Express 기억의 파동 Waves of memory> 차민영
- A1 3등 대합실 <철도기술>, <연결의 속도 Speed of Connection> 김신아
- A2 1,2등 대합실 <Railroad Innovation To Future And Beyond> STUDIO PUBLIK
- A3 귀빈실 <철도박물관 소장품>
- A4 서측복도 <KTX 및 열차 모형, 디지털 트윈>
- RTO <KTX 브랜드북 '달려온 20년, 달라진 대한민국' 영상 강의>

2F



- M5 소식담(복도) <An aggregation 240129> 박신기
- M6 그림 <KTX 사진전> 이갑철, 김도현, 김재원, 김호성, 남종현, 이승주, 이정우, 정호석, 주아루
- M7 구회의실 <49초, 11초 49 Seconds, 11 Seconds> 김준수
- DESIGN LIBRARY 차대실 <KTX 20주년 철도굿즈>

연계 프로그램

RTO

강사 역사커뮤니케이터 최태성  
일정 전시기간내 매주 토, 일요일  
시간 11, 14, 16시  
장소 문화역서울284 RTO

**KTX** 브랜드북 '달려온 20년, 달라진 대한민국' 영상 강의

KTX 개통 2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KTX 브랜드북' 강의를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